

# 주간케인

## WEEKLY KANE

#04



해설지



## [주간케인04] 20.06 경제 지문 해설지

[주간케인]은 지문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우리 한 문장, 문단씩 같이 봅시다. 수업이라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 01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몇 가지 정해놓고 볼 겁니다.

**1. 문장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는 그때그때 정리합시다.**

**2. 맥을 못 잡겠다면, 문단이 끝났을 때 몇 초만이라도 투자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 끊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PIRAM뎀께 배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겁니다.)

**3. 우린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는 머리 속에 박을 겁니다.**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상식적인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시험장에선 뭐든지 해야죠. 제가 말한 게 배경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아직 조금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늘게 돼있거든요. 정말 무리하지 않은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사실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은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때내는 것은 모순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상식' 수준입니다

**5. 반응합시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반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나, 번외로 추가합니다

###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 02

제 수업의 특징은 지문 내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한계를 최대한 넓혀주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숨겨진 전제, 구조 등을 눈치챌 수 있게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그 운이 실현되는 빈도가 꽤 많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실전적인 측면도 철저히 챙기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절대 쓸모 없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태도를 교정하면 보이는 측면에서만 다룰 겁니다. 평가원이 이해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각 문단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내포된 답도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철저히 독서 공부의 측면에서 쓰셔야 합니다.

## 목차

- 지문 훑어보기

#01

#02

#03

#04

#05

- 거시적 지문 정리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2. 지문 위 구조 파악

3. 실전 반응 정리

4. 지문 필터링 ; 흘려읽기

- 문제 뜯어보기

● **지문 훑아보기 : 내용 설명 구조 설명 태도 설명**

**#01**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번 주 주간케인에서 말했듯이 **이항대립의 쌍을 이루는 단어 중 하나를 보면 바로 이와 대립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전통적'과 대립되는 것은 '현대적'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이 단어가 쓰이지 않더라도 이를 의미하는 내용이 나올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이렇게 대립을 보여주면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단순히 '현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것을 인지하고만 있지 마세요. 학문은 시대가 흐르며 발전하고 어떤 변화 기점에 따라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구분됩니다. **전통적인 어떤 점이 문제가 되어 현대적인 무언가가 나왔을까요?**

각설하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돌아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정책 금리를 활용합니다.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물가와 경제 안정을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금리를 얼마나 조정하면 물가와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입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아! 바로 설명해주네요.

경기가 과열되면 당연히 금리를 조정하겠죠? 금리는 수단이니깐요.  
여기서 짚어야 할 건 **경기 hot → 정책 금리 up → 경기 진정**  
비례관계를 체크합니다. 저는 메모해 놓습니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아, 정책금리는 결국 시장금리를 조절하는군요!  
생각해 보면 또 당연한 말입니다. 정책은 '이상'에 해당되고, 시장은 '현실'에 해당돼요. 이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감소로 이어져요. **가계 및 기업은 모든 사용자라고 인상을 잡고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가계와 기업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금리, 즉 대출이자 높으면 당연히 대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 금리가 대출이자와 같음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이 마지막 사고는 못 했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사고의 양은 되게 한정적이니까요.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신용공급?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신용을 공급한다.' 단어를 뜯어봐도 큰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로 이루어진 않았어요. 이럴 땐 맥락에 따라 해석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금리 조절을 통한 시장 조절'.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와 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짚었어요. 대출을 할 땐 신용 등급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고요. **대출이 맥락상 신용공급이구나. 상식적인 사고로 눈치채는 태도입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경제 내 수요를 줄인다 : 당연하죠?  
물가 안정과 경기 진정 : 제가 이과라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 물가가 높아지는 게 물가가 안정되는 것보다 훨씬 개연적이지 않나요?**

단어를 뜯어봄은 매우 유용한 독해 팁입니다.

통화 : 통용되는 화폐  
→ 통화량 :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의 양  
금리 : 금(화폐 금)의 이자  
→ 금리는 즉, '대출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뜯어보면 쉽게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어휘는 미리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갈수록 경제 지문은 불친절해지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미리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지문 이해의 깊이를 바꿉니다.** 우리가 순간에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10 이하할 때, 이 어휘들을 모른다면 단어 이해에 4 내용 이해에 6 을 쏟아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선 1 : 9 로 그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배경지식을 강요하는 건 딱 이정도 선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제재에서의 기본 용어에 대한 익숙함.

경기정책 ⇒ 금리정책 ⇒ 물가안정 → 경제안정  
항상 능동적으로 흐름을 파악합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 사이의 선후관계는 [01:01]의 도모라는 단어를 통해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안정된 상태를 좋아합니다. 물가의 안정, 경제의 안정,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정말 많은 것들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일어납니다. 심지어 과학에서도, 분자들은 안정된 상태를 위해 반응을 일으키며 물체가 부서지고 떨어지면 어쩌면 안정된 상태를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않아요?

'인상을 잡음'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 인상이 틀릴 수도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예외상황은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시장에서 소비자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 흐름 파악하기  
단어 뜯어보기 / 인상 잡기 // 팩트 잡기 등...  
이 다섯 가지 태도들을 조합하고 응용하면서 지문을 독파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p>뭔가 내용이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을 때, <b>우리, 상식적으로 사고합시다.</b></p> <p>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간단하죠? 경기 과열을 빠르게 이해했으니 경기 침체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반대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 좀 물어볼게요.</p> <p>첫 문단부터 빠셨습니다. 인과관계 많이 나왔어요. 명백한 출제 포인트죠? 당연히, <b>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입니다.</b></p> <p>그리고 이게 29번의 답이었습니다. 오답률 10위, 51.4%.</p> <p>그렇다면, 이 문단을 다 읽고 나서, 한 번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b>저는 매우 간단하면서 빠르게 중요 인과 관계를 메모를 할 것 같습니다.</b> 읽은 내용을 정리할 겸 해서요.</p>	<p>작년 유대종 선생님의 '진또배기' 강의에서 배운 출제 원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더하여 해설로 풀 것입니다.</p>
---	--

<p>첫 문단부터 힘듭니다. [주간케인 01 : 반추위]에서 뭐라고 했죠? <i>'첫 문단이 빠센데 나중에 난이도가 확 풀리는 경우는 잘 없다.'</i> 하지만, 첫 문단을 빠르게 읽으면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같이 봅시다. 따라와요!</p> <hr/> <p>정책금리를 통해 시장을 조절하는 정부. <b>이상적인 정책, 이론들이 현실에 적용되면 무조건 예외 상황이 생깁니다.</b> <b>이론은 절대 현실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b></p> <p><b>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 구조독해</b></p> <p>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까지 읽은 것만 보면 제시된 연속적 인과관계 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p>
---

## #02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땐 문장의 구조를 보자고 했습니다.

문장같은 미시적인 구조는 주로 D→C 와 C→E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조사에 주목해야**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전달 경로로만 보니, 현대적인 경제학에선 통화 정책이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 **전통적인** 경제학은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고, 이는 **개별** 금융 회사에 관련된 것이네요. 따라서 **현대적인** 경제학은 **거시적**으로, 회사 **집단적**인 것, 즉 **시스템적**인 것에 주목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집단은 반드시 시스템을 가지기에 이렇게 유추하였지만, 시험장에선 거시적인, 집단적인 것으로만 인상을 잡아도 좋습니다.)

'금융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는데, **금융**이 이 지문에서 정확히 무엇과 대응되죠?

[01:01]의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01:01]을 다시 정리하면, **통화 → 금융 → 경제&물가**로 볼 수 있네요. 따라서 통화 정책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금융이 건전해야 함**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시 건전성 정책'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많은 정보를 내포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이 문장은 뭘을 말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게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인식과 가설.

인식 :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가설 :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효율적 시장 가설.

**문장도 구조를 보아야 하는 이유. 이제 알겠나요?**

사실 지문 길이에 비해 체감 정보량은 크게 많진 않습니다. 버블에 대한 설명,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이 매우 당연하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명은 빠르게 읽기보다는 흘러 읽으며, 그저 본인의 인상과 부합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읽는 문장에 따라 능동적 독해력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수단의 가치가 그거니까요. 이 수단은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집니다. 개별 금융 회사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 회사가 가지는 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저 자기자본 규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시를 드는 구조**네요. 거시적인(지문) 구조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P<Ex**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면 뭘쥬? 정보가 많이 들어갔다.

한 문장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 있으면 빠르게 눈치 채고 구조를 파악하며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해요.

구조를 파악함은 정보의 역할을 아는 것과 같다고 했죠?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고 난 뒤 구조를 떠올려 보는 순서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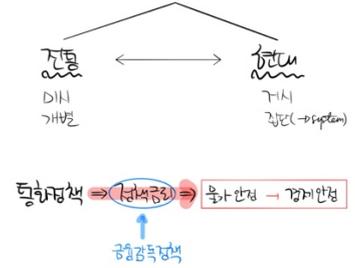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거나 제한해 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는 고정된 뜻이 있지만, 보조사는 문맥에 따라, 글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보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적 경제학** : 시장에선 본질적 가치 내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는 어쩌면 효율적인 것과 이미지가 부합하겠네요. (인상잡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 (단어 뜯기)

: 효율적 시장 가설



'경기 안정'이라는 주된 흐름 속 일부 단계에 집중한다는 느낌이 드는 지문입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정보의 역할을 생각해 주세요.** 내용과 흐름(구조)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독해 태도입니다.

이 또한 작년 유대중 선생님의 '진도배기' 강의에서 얻어간 태도입니다. 이를 제 나름 개발하여 **지문 필터링**이 된 겁니다. 사실, 저에게 맞게 체화시켰다 뿐이지, 다를 건 없습니다.

**최저 자기자본 규제**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용어지만, 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일까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용어의 의미와 **직관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문의 화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개념 하나로 한 문단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고, 설명을 할 때도 이항대립적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후반부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지문의 화제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 '금융의 안전성을 위한 정책의 발전'이 될 것 같아요.

### - 복잡한 문장 위 구조 반응 법 -

#### 내용 표시 구조 표시

\*[주간케인 01] 17.11 반추위 참고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 #03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원적인'은 '독립적인'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금융과 통화는 독립적인 변수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핵심이었어요. 현대적인 경제학은 두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음을 고려하겠군요. 어떤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러한 발상을 하였을까요? (P ↔ E(P) → S)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그렇군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겠네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기 부양 ... 저금리 정책' 첫 문단에서 소개한 인과관계가 떠오르시나요?

버블이 없을 줄 알았는데, 버블이 실제론 생겼습니다.

따라서 경제 안정은 당연히, 훼손되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금융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당연히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끼치겠죠.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다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대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관련 내용을 뉴스나 신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네. 당연하죠? 우린 이미 예전에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뭐 말이 많은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금융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관계 또한 고려한 정책.

융합적으로 사고해야 함. 독립적인 변수가 아님.

조심해야 할 건 거시건전성만 보는 게 아니라 미시건전성+거시건전성 이라는 겁니다.

구조를 보는 것이 반응임을, 이제 알겠나요?

김동욱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아마 [03:01] 설명의 마지막 줄(파란색)에서 김동욱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존재함을 알게됐으니,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본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딱 이 정도 수준의 배경지식!

상식적으로 사고하며, 상식을 이용합시다.

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상식적인 배경지식을 어디서 떠올릴 수 있겠나 분석해보는 것은 좋지만, 시험장에서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절로 떠오르면 떠오르는 거고, 그게 아니면 팩트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도가 확실히 달라지지 않나요?

지문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첫 문단을 빠르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낯선 내용에서 억지로라도 반응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경제는 경제 대로, 금융은 금융 대로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금융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03:0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만 집중하는 게 아닌, 미시+거시까지 고려한 정책을 세워야 한대요. 이 금융을 위한 정책이 통화 정책과 상호보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 #04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콤마를 기점으로 문장이 나뉘니 우리도 이걸 기준으로 독해해 봅시다.

1. 시스템이 건전해야 함
2. 거시 건전성 정책은 포괄적인 활동임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구성의 오류라는 낯선 용어가 나왔지만, 그 의미는 납득이 가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아 알겠단니까요?

거시 건전성은 시스템적 위험을 예방적 규제를 통해 해결한대요.

하나 가져갈 건, 이 친구도 예방적이라는 것.

인상을 잡는 게 중요하기에, 지문과 완전히 일치하게 적진 않았습디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정확하고 엄밀하게 정보를 기억 못해요. 여러분은 인상을 잡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사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방적으로 규제해야지, 사후적으로 규제 하면 소용 없죠. '규제'가 왜 '규제'겠어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시 건전성 정책은 정책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시 건전성 정책도 똑같이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설명을 하겠죠!

이를 예측하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 #05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정책 수단이 바로 나오네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수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경기에 순응하는 성질.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차분히 독해해 봅시다.

'경기 호황 → 대출 증가 → 신용 공급 팽창 → 자산 가격 급증 → 경기 과열'

뜨거운 상태가 더 뜨거워진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Feed-back 과정입니다. 악순환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럼 반대 과정은 차가운 상태가 더 차가운 상태가 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미시 건전성 정책의 '최저 자기 자본 규제'보다 더 발전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발전되었는지) 능동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최저 자기 자본' + '완충 자본'

경기 과열기,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 완충 자본을 쌓게 합니다. 완충이라는 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이니까 본 지문에서 충격에 해당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의미겠죠?

한편 적용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그렇네요. 이렇게 지문이 끝났습니다.

미시 건전성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똑같이, 경기 호황일 때를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경기 불황일 때는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힘들 수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미시 건전성 정책의 내용들과 대조해보며 읽었다면 충분히 잘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이미지를 떠올리고 인상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어차피 지문을 읽으면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인상을 잡고 가야합니다. 선택과 집중!

4 문단에서 예상했던 대로, 정책을 위한 수단이 나왔습니다. 미시 건전성 정책의 정책 수단인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입니다. 최저 자기 자본에 완충 자본을 더한, 안정성을 높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역할을 파악해야죠? 역할을 파악한다는 건 본인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면에 구상한 구조 속 어느 부분에 이 개념을 넣을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완충 자본은 충격을 완화하는 자본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역할입니다.

금융 회사가 경제를 직접 고려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 ● 거시적 지문 정리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갖기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①**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 이항대립

(전통적)

(현대적)

$P \longleftrightarrow \neg(P)$

$\neg(P) \longrightarrow S$

$D \longrightarrow C(C) \implies \neg$   
 정석 (미시건전성)    수단 (초저자기 자발 규제)

$D \longrightarrow C \implies \neg$   
 SYSTEMIC 주목!    정석 (미시건전성)    수단 (경계 대응, 완충자발계단)     $\neg$  (무시안정 & 정제안정)

인식  
 $D \longrightarrow C$   
 긍정은 전담요 (나타 수안)    부정적 (경계 영향)

현혹적 시장개념  
 ~나쁜

## 2. 지문 위 구조 파악

: 본 지문은 전통적 경제학과 현대적 경제학이 대립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문 위에 구조를 표현해 주세요!

해설지 부록 참조

## 3. 실전 반응 정리

: 배운 내용들을 태도로 본인이 실전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정리해보세요. 모든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쓰는 겁니다!

해설지 부록 참조

## 4. 지문 필터링 ; 흘러읽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인의 예측과 '확인'만 하는 작업. 중요 개념들은 표시해야 함.)

: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현대적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도입되며,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흘러읽어도 충분했던 문장들에 밑줄을 쳐주세요.

해설지 부록 참조



